

경상남도 미주 인턴쉽 프로그램 1기 참가자 수기

인턴 참가자: 김효정

소속 대학: 경남대학교

전공: 패션의류 학과

인턴쉽 기간: 12 개월 (08/08/2016 - 08/07/2017)

인턴쉽 비자 스폰서: Alliance Abroad Group (AAG)

인턴쉽 기업: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소재 의류 제조/도매 회사



Welcome to LA

나는 패션의류학을 전공했었고, 한 학기를 남겨두고 인턴십을 신청해서 절차를 밟고 미국에 왔다. 현재는 졸업을 했고, 인턴십도 계약기간을 채워 모두 마쳤다. 처음 미국에 온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지낼 생각에 두 번째의 LA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처음 숙소는 한인타운 중심으로 집을 알아보고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좀 더 마음에 드는 집을 알아봤다. 회사는 버스와 기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했고, 회사 언니들과 동선이 맞으면 태워주시기도 했다. 두 번째 집은 스테이플스 센터 근처로 다운타운과 더 가까웠다. 집은 위치와 내부시설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위험한 동네인지, 시설이 너무 부실하진 않은 지 잘 살펴 봐야 한다.

입사하게 된 회사는 1994년 작은 스토어로 시작해서 지금은 IMPORT와 DOMESTIC을 하며 한국까지 뻗어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나의 회사는 총 8개의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복 패션 회사로 디자인 팀과 MD, PRODUCTION, FIT 팀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나는 디자인 팀에 소속되어 Flat Sketch, Color Swatch Handling, Sample 관, Mailing, Pre-Production 등을 주로 맡아 배우고 일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인턴이 하는 일일지라도 필요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본인의 마인드에 따라 배우는 범위가 달라지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한다.

사실 LA에서 교통편은 한국만큼이나 편리하게 잘 되어 있지 않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기차가 오래 정차 해 있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나는 UBER나 LYFT를 주로 이용하곤 했다. UBER와 LYFT는 택시와 같은 종류인데, 다른 점은 요금이 미리 계산이 되어 결제가 되고 목적지만 입력하면 편하게 경로를 따라 데려다 준다. 마지막 교통 수단은 자가용인데, 사실 이 비용과 택시 비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차라리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더 추천하고 싶다. 자동차는 장기간으로 여행 갔을 때 렌트 하는 정도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METRO(버스, 기차) 가격은 One way에 \$1.75이며, 교통카드는 기차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타지에 혼자 있어 힘든 만큼 집의 비중도 절대 무시 못한다. 아늑한 집이 있어야 마음에 안정이 오기 때문이다. 집은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에 단기로 예약을 하고 천천히 둘러보면서 장기 계약 할 집을 찾는 것이 좋다. 괜히 장기 계약 한다고 했다가 실제로 보고 파기하는 사람들을 매번 봐왔다. 보통 인턴들이 오면 집을 렌트하기 보다는 방 한 칸을 렌트해서 지낸다. 룸 렌트만 해도 \$600불은 거뜬히 넘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라디오코리아'라는 사이트를 보면 구인구직, 렌트, 무병세일 등 많은 정보가 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1년 동안 끊임 없이 배웠고 일했으며, 열심히 여행을 다녔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실전에서 쓰는 용어들, 그림 표현방법, 업무처리 그리고 학교와는 다른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값진 기회였다. 회사에서 뿐 만 아니라 여행을 다니면서도 항상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도시들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내가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도시 구석구석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말의 표현 방식도 알아가고 있는 내가 보였다. 내가 접하지 않았던 모르는 것과 부딪혔을 때, 의문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물어보고 깨닫고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는 많은 것을 배워나갔다. 그것이 업무에 관련된 것이든 여행에 관련된 것이든.